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과열... 민주, 텃밭서 '경고등'

양부남·강위원 후보 과도한 경쟁... 원내·원의 갈등 갈수록 악화 조국혁신당, 2년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전통 지지기반 무너질수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호남 정치 분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내부 총질'이 잇따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민주당 원팀'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양부남(서구을) 국회의원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 간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강위원 상임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단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사·구위원들 앞세워 양부남 후보를 지지토록 만들고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에 우리가 바꾸고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낡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을 겨냥해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뛰어들려면 지금 당장 말고

는 당 대표 직무대행 비서실장 자리도, 동남갑 지역 위원장도 내려놓아라"고 직격했다.

앞서 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두 달도 안 된 국회의원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면서 광주를 반쪽 내는 갈라치기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본인이 시당위원장 되는 순간 기득권인 텐데 그 나쁜 기득권 왜 하려는지 선동과 프레임짜기로 세상을 속일 수 없다"고 강 상임대표를 직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양부남 의원 측도 이날 "강제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동의 없이 지지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당내 선거를 자꾸 과열로 몰아가고 당원을 거짓 선동으로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 원내와 원외로 지역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는 것은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의 갈등이 재 봉합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는 개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총선 낙선자 진영과 22대 국회에 입성한 세력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이 불붙었다는 것이다.

또 원내와 원외 간 분열이 계속된다면 2년 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공인한 만큼 민주당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탈당하는 진영의 선택지도 많아지고, 지방선거 본선에서도 민주당 파급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국회의원, 사·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과열되는 시장 위원장 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갈등에 대한 개입과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이후 '원팀'을 이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견인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당내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시장 위원장 선거가 과열된다면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압승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표결에 앞서 이재명 전 대표, 정청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 당정협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일 국회 정부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민생 문제인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필요시 고위 당정 협의 회도 이른 시간 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섭 중소기업부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부터 정부 대책 등도 보고 받았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도 지원한다.

당 지도부는 금융위 등 관련 기관에 대책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먹사니즘' vs '민생경제 대연정'

민주 당권 경쟁 정책대결 확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소위 '먹사니즘'을 앞세워 일찌감치 민생문제 어젠다를 주도하자 김두관 후보는 29일 여야에 '민생경제 대연정'을 공식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며 "향후 1년간 민생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 집행이 빠르면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연정 내각'도 구성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 전면 개각과 정책 기조 전환, '여야

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하고, 윤 대통령은 이 후보를 구속하고 싶어 한다.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며 '치킨게임'을 하는 모양새"라며 "양측의 영수 회담도 지난번 1차에 이어 지금까지 어렵게 2차, 3차 회담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힘겨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자신이 대표가 되면 이런 극한 대치 구도를 해소하고 연정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반면 이 후보의 민생-실용 노선을 그대로 담은 '먹사니즘'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대대적 지

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차기 지도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연구 모임인 '더여민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 대표는 5선의 안구백 의원이고 부대표는 김교흥·전현희 의원으로, 37명의 의원이 대거 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도 총회에 참석해 역시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선원 의원의 '한반도 안보 평가와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문제점' 특강을 들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논의하는 범야권 국회의원 정책연구 모임도 뜻을 올렸다. 이 모임은 차기 대선 때까지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한동훈 체제'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계파색 열어 원내 소통 역할 관측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으로, 널리 이야기를 듣고 찾아뵈었다"며 사무총장 인선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 직후 대표실을 찾아 한 대표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사무처 전체적으로 안정을 지키고 새로운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 중진을 지냈고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서범수 전 의원의 친동생이다. 조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서 총장은 계파색이 없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정 관계와 원내외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도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등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